

조선시대 회화에 묘사된 아동의 양육과 생활

Child-Rearing Practices and Activities of Children Depicted
in Traditional Paintings of the Chosun Period

최 기 영*

Choi, Kee Young

이 정 미**

Lee, Choung Mee

ABSTRACT

This study of child-rearing practices and daily activities of children during the Chosun dynasty was conducted through analysis of 91 traditional paintings of the period. Genre, figure, folk, and landscape painting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Findings were that child-rearing was strongly focused on the family. Generally, the mother was shown as the primary caregiver of the child. Grandmother, father, and grandfather also played a role in raising the child. The daily activities of the children consisted of helping with household chores, assisting the elderly, doing small jobs, studying, playing, performing for family members, and participating in family rituals and community events. Differences in child-rearing methods and contents of daily activities varied by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Key Words : 조선시대(Chosun period), 전통회화(traditional paintings), 아동양육(child-rearing)

* 접수 2001년 9월 30일, 채택 2001년 10월 15일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mail : young@cc.knue.ac.kr

** 대구미래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현재의 아동생활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삶을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눈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전통사회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통하여 현 사회의 아동에 대한 이해의 토대와 뿌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전통사회 아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글로 기록된 문헌을 중심으로 사대부(士大夫) 가정에서 행해진 양육이나 교육이 고찰되었고(류점숙, 1994; 우영희, 1989; 이순형, 1997), 면담방법을 통한 일반 가정의 양육과 교육도 연구되었다(유안진, 1990). 근래에 들어와서는 전통사회의 전래동화나 노래, 놀이, 그리고 소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어 과거의 아동들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있다(김영철, 1996; 이은화, 1989; 정대련, 1990).

Aries(1962)는 프랑스의 다양한 문화유산 자료를 토대로 중세말부터 18세기까지의 아동들의 생활모습과 아동관을 밝혀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들의 모습이 표현된 전통회화(傳統繪畵)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전통사회 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들(정진, 백혜리, 2001; 최기영, 이정미, 2000)이 행해지고 있다. 조선시대 회화에서 사람의 모습이 묘사된 그림을 보면 대부분 풍속화나 민화, 그리고 인물화에서 주인공 또는 배경인물로 등장하였으며 산수화(산수인물화)에서도 일부 보여지고 있다. 이 중 풍속화는 당시의 생활상을 그린 그림으로 인간생애의 주요행사나 관습, 그밖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현상과 실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으로 그 시대의 사회상과 시대정신이 기록되어 있다(안휘준,

1985, 1988; 이태호, 1996). 조선시대 회화분석을 통하여 아동 특성을 파악한 연구(최기영, 이정미, 2000)에서 보면 아동이 주된 화제(畫題)로 다루어진 것은 별로 많지 않았으나 가정 안은 물론 가정 밖의 다양한 생활장면에서 어른들과 함께 폭넓은 생활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들은 인구학적 변인인 연령, 성, 그리고 계급에 따라 상이한 생활 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조선시대 풍속화를 통하여 아동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연구(정진, 백혜리, 2001)에서는 아동생활 모습을 아동과 가족, 놀이, 학업, 그리고 노동생활로 분석해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 구성원, 가족의 중요한 존재, 그리고 성별에 따라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민화인 백동자도 연구(백혜리, 1999)에서도 아동의 놀이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회화에 나타난 아동의 모습을 분석한 연구들을 통하여 아동생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파악과 아동에 대한 인식이 점점 규명되고 있다.

전통사회 아동의 사회화 과정은 양육과 생활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아동기 양육 및 생활특성을 연령에 따라 단계별로 정리한 연구들(류점숙, 1994; 유안진, 1990)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태교단계에서는 모성태교와 함께 부성태교가 강조되었으며, 감각 및 동작훈련단계(출생-3세)에서는 주양육자는 어머니였으나 가족들도 양육보조자로서 참여하였다. 무렵학교 단계(3세-5세)에서는 할머니가 동생의 출산으로 양육이 소홀히 되기 쉬운 손자녀와 함께 기거하면서 이유와 배변훈련을 실시하여 이상적인 대리모와 유아교사로서 며느리의 육아를 도왔다. 그러나 남자 어른인 아버지나 할아버

지의 경우는 엄격한 훈육자로 인식되었다. 자발적 학습단계(5세-7세)에서는 아동들의 기본 습관을 훈련시켜 버릇교정과 독립성을 기르고자 하였으며 가사에도 참여시켜 성인가족을 돕거나 과업수행능력을 인정받게 하였다. 여아는 주로 집안 일을 맡아는 사랑방과 집밖 일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소학(주희, 1982)이나 사소절의 동규(童規)편(이덕무, 1985)을 보면 소쇄(掃灑)나 어른 시중들기 같은 일을 강조하고 있어 아동들이 심신을 수고로이 하고 어른들을 존경하는 덕을 기를 것을 권하였다. 이와 함께 의례규범, 훈육과 같은 학습도 강조되었는데 훈련의 주된 담당자는 동성(同性)의 어른이었으며 특히 할아버지는 통솔자의 위치에서 보다 엄격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관심 속에서도 양육을 받았다.

한편 아동놀이는 발달단계별로 다양한 놀이가 행해졌으며 성별에 따라 놀이에 구분이 있었다(유안진, 1990). 또한 세시풍속에 따른 다양한 민속놀이와 집단놀이가 행해져 어른들과 아동들이 참여하여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다(손인수, 1991) 그러나 아동놀이에 대해서 격몽요결의 지신장(持身章)(이울곡, 1986)과 사소절(이덕무, 1985)에서 놀이를 법도와 때를 가려 할 것과 문란한 놀이를 금하였으며, 공부를 방해하고 바른 심성을 해치는 놀이를 금하는 등 지나친 놀이가 학업이나 정서의 통제를 어

럽게 한다고 경계하였다.

성역할 교육단계(7세-13세)에서는 남녀 성별에 따라 생활의 장이나 교육담당자, 과업, 그리고 성역할 기준과 기대 등도 상이하였다. 남아에게는 성인군자를 목표로 5대 성역할을, 여아에게는 현모양처를 목표로 4대 성역할 습득을 기대하였으며 이의 함양을 위하여 동성(同性)의 성인들이 성별에 따른 역할을 가르쳤다(유안진, 1990).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은 주로 문헌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어서 전통사회의 아동을 보다 다면적,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자료의 분석이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아동연구 자료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조선시대 회화들 중 풍속화, 인물화, 민화, 산수화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전통사회 아동의 사회화과정의 중요한 기능인 양육과 생활 내용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을 아동을 돌보고 기르는 것으로 보았으며 양육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도 포괄적인 의미의 양육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조선시대 회화에서 묘사된 아동양육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조선시대 회화에 묘사된 아동생활 내용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모습이 그려진 회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선시대에 그려진 회화들

중 인물이 표현되어 있는 풍속화(風俗畵), 인물화(人物畵), 민화(民畵), 산수화(山水畵)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서화유물도록(국립중앙박물관, 1991, 1992, 1993,

1994, 1996, 1997, 1998, 1999) 1, 2, 3, 4, 6, 7, 8, 9집, 한국의 미(중앙일보사, 1985) 1, 8, 11, 12, 18, 19, 20, 21권, 국보(안휘준, 1986) 19, 20권, 국보증보판(안휘준, 1992) 10권, 한국회화대관(유복열, 1979), 한국미술대전집(최순우, 1981), 민화(조자룡, 김철순, 1992)에 수록된 회화 작품들, 그리고 그 외의 개인 및 박물관 소장품들이 분석되었다. 부록 <표 1> 참고.

2. 분석절차 및 분석방법

연구자들은 먼저 조선시대 회화들이 수록되어 있는 도서와 자료를 대상으로 아동의 모습이 표현된 그림을 1차로 수집하였다. 아동의 모습이 주된 화제(畫題)로 표현된 것은 물론 배경의 일부분으로 표현된 것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1차로 선정된 그림 245점을 대상으로 아동의 양육과 생활을 분석준거로 하여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245점 중 유사한 그림과 도교와 불교풍인 도석화(道釋畫)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된 회화는 총 93점으로 풍속화 71점, 인물화 5점, 민화 4점, 산수화 13점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아동은 회화에서 아동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만을 분석하였다. 전통사회에서는 아동을 동몽(童夢)이란 용어로 사용하였는데 그 시기는 관례를 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한국전통사회에서 남자는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관례를 행하고 또 여자는 15세가 되면 관례에 해당하는 계례를 행한다고 한다. 회화 작품에서 연령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통사회의 복식사 연구에서 파악한 아동의 복식과 머리모습(임명미, 1997; 조효순, 1995)을 보아 아동 여부를 판단하였다. 조선시대는 신분의 구별이 매우 엄격하였으므로 행동거지나 복식에서 양반과 뚜렷하게 구분된다(임명미, 1997; 정연식, 2000; 2001; 조효순, 1995). 본 연구에서는 신분구별을 상황, 의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1392-1910) 전체의 회화를 분석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세부적인 시대 구분에 따른 특성을 파악한 것은 아니었으며, 회화의 외적 표현 특성만 살펴봐왔으므로 내재된 의미까지를 충분히 파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Ⅲ. 조선시대 회화에 나타난 아동의 양육과 생활

1. 아동 양육 특성

유아는 일상생활 어느 곳에서나 어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양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양육의 주된 특성은 가족 중심적 양육,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형제 양육, 그리고 양육장소의 개방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가족 중심적 양육

아동들은 가족의 일원으로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부모는 물론 집안 어른이나 형제 자매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가정의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가정의례[작가미상의 《회혼예도(回婚禮圖)》], 가족의 바깥나들이[김홍도의 《풍속화첩(風俗畫帖)》 중 노중상봉(路中相逢), 아버지의 부임(赴任)행렬에서 부담기

(負擔機)를 탄 아동들의 모습[김홍도의 《안능신영(安陵新迎)》] 등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어머니의 양육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가장 많이 보여지는 양육 장면이었다. 주된 장면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거나[마균후의 《촌녀채종(村女採種)》, 신한평의 《젓 먹이기》, 김득신의 《풍속팔곡병(風俗八曲屏)》 중 3면, 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점심], 품에 안겨있거나[채용신의 《운낭자상(雲娘子像)》] 잔치 구경하는 어머니 등에 업혀있는 [작가미상의 《회혼예도》, 김홍도의 《모당평생도팔곡병(慕堂平生圖八曲屏)》 중 1면] 장면이 많았으며, 일하는 어머니 등에 업혀있거나[김홍도의 《행려풍속팔곡병(行旅風俗八曲屏)》 중 8면], 일터에서 귀가하는 어머니 등에 업혀있는 모습[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어촌귀가]도 보이고 있다.

어린 아동은 어머니가 있는 곳은 어디에나 따라 다니며 곁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즉 농사철 새참 내가는 어머니를 따라가거나 [김두량, 김덕하의 《사계산수도(四季山水圖)》 중 가을], 김홍도의 《경직도(耕織圖)》], 물을 길거나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라가거나[김득신의 《풍속팔곡병》 중 7면, 작가미상의 《전가낙사도(田家樂事圖)》], 잔치구경하는 어머니 옆에 서 있거나[작가미상의 《회혼예도》, 김홍도의 《모당평생도팔곡병》 중 1면] 등이다. 또한 글쓰는 어머니 옆에 서 있거나 [김지의 《여인사서도(麗人寫書圖)》], 빨래터에서 머리를 빚는 어머니 옆에 매달려 있는 [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빨래터] 모습을 볼 때 어머니는 장소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옆에 데리고 양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업에 종사하는 어머니 곁에도 자녀가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행상하는 어머니 등에 업혀 있는 아동 [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행상], 주말일을 보는 어머니 뒤에 앉아 있는 아동[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주말], 기녀의 등에 업힌 아동[유운홍의 《기녀(妓女)》]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어머니가 가사일을 하는 동안만 아니라 생업의 장소에서도 자녀가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할머니의 양육

할머니도 대리모로서 손자녀의 양육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느리가 가사일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 할머니는 일하는 며느리 옆에서 손자녀를 업어서 돌보기도 하였다[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길쌈, 조영석의 《어선도(漁船圖)》]. 또한 마을의 큰 잔치나 행사가 있을 때도 할머니가 손자녀를 데리고 나가 구경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있어[김홍도의 《평양감사향연도(平壤監司饗宴圖)》 중 월야선유도(月夜船遊圖)] 양육자로서의 할머니의 다양한 역할을 알 수 있다. 특히 할머니는 여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 손녀의 양육을 보다 많이 담당하였다고 보여진다[작가미상의 《회혼예도》].

4) 아버지의 양육

아버지도 여러 형태로 자녀의 양육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은 추수를 감독하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거나[작가미상의 《전가낙사도》], 아버지와 함께 음식을 먹거나[김득신의 《강변회음(江邊會飲)》], 아버지가 주는 음식을 받아먹거나[조영석의 《새참》], 등에 업혀 있기도[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노중상봉]하였다. 일상생활 외에도 아버지는 행려(行旅)길이나[작가미상의 《전가낙사도》], 잔치나 행사를

구경할 때 자녀의 손을 잡고 나가 함께 구경을 하였다[김홍도의 《평양감사향연도》 중 부벽루 연회도(浮碧樓宴會圖), 유숙의 《대쾌도(大快圖)》]. 바깥나들이의 경우 아버지는 주로 남아를 데리고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할아버지의 양육

할아버지도 손자녀와 함께 지내면서 양육을 일부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한 행사시에 할아버지 옆에 손자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김홍도의 《홍계회평생도육곡병(洪啓禧平生圖六曲屏)》 중 5면 치사(致仕), 작가미상의 《회혼예도》], 집안일이나[김득신의 《성하직리(盛夏織履)》], 농사일을 살피거나[작가미상의 《경직도》, 이한철의 《세시풍속도(歲時風俗圖)》, 김득신의 《풍속팔곡병》 중 3면], 추수 구경을 할 때도 [김두량, 김덕하의 《사계산수도》 중 가을] 손자와 함께 하였다. 예외적으로 할아버지가 손녀의 손을 잡고 새구경하는 모습이 표현되기도 하였다[허난설현의 《간강비금도(仰看飛禽圖)》].

또한 회화에 묘사된 모습만으로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나 남아들이 노인들과 가까이 있는 모습이 많았다. 시회(詩會)모임에서 시중들기[정황의 《역안와수석시회도(易安窩壽席詩會圖)》], 그림도구 준비[김홍도의 《선면서원아집(扇面西園雅集)》], 산과 물을 벗삼는 노인들의 지팡이 들기[김홍도의 《관암도(冠巖圖)》] 등을 하면서 노인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6) 형제의 양육

성인들의 양육 이외에 형제 자매들간의 양육 모습도 나타났다. 집안에서나 집밖의 나들이, 또는 행사가 있을 때 순위사람이 동생을 업어주거나 돌보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김홍도의 《모당평생도팔곡병(慕堂平生圖八曲屏)》 중

1면, 신윤복의 《장옷입은 여인》, 유숙의 《대쾌도》, 작가미상의 《전가낙사도》].

7) 양육장소의 개방성

양육의 장소를 보면 집안은 물론 집밖의 여러 생활 장면에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나 성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양육이 자연스럽게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의 다양한 의례행사나 잔치[작가미상의 《회혼예도》, 김홍도의 《모당평생도팔곡병》 중 1면]에서는 물론 가정밖의 생활장면들, 즉, 농사처[마군후의 《촌녀채종(村女採種)》]나 여러 생업 장소[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행상], 놀이[김홍도의 《평양감사향연도》 중 월야산유도]나 휴식 장소, 그리고 사교장소[정황의 《역안와수석시회도》]와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아동 양육이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주된 특성들 이외에 드문 표현이기는 하였으나 사대부 가정에서 대리 양육자로 흔히 들여진 유모의 그림도 보여졌다. 신행길의 신랑 뒤에 유모가 말을 타고 함께 따라가는 모습[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신행]을 볼 수 있다(정연식, 2001).

2. 아동생활 내용

아동생활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내용별로 범주화해 본 결과 아동들의 생활은 가내·외(家內·外)일 돕기와 어른 시중들기, 생업참여, 공부하기, 놀이하기, 의례 및 행사참여로 나타났다.

1) 가내·외(家內·外) 일 돕기와 어른 시중들기

남아들의 경우 집안을 쓸거나[김두량, 김덕하의 《사계산수도》 중 여름], 남자 어른들의

차를 달이거나 나르는 일[김홍도의 《홍계회평생도육곡병》 중 치사, 《선면서원아집》, 이방운의 《파초고사도(芭蕉高士圖)》, 이재관의 《오수도(午睡圖)》], 참 나르기[이한철의 《세시풍속도(歲時風俗圖)》], 글 쓰거나 그림 그리기 도구를 준비하는 일들을 주로 하였다. 그리고 노인들이 나들이 할 때 짐들기[이방운의 《포금방우도(抱琴訪友圖)》]나 간단한 시중들기[김홍도의 《서원아집(西園雅集)》, 이재관의 《초엽제시(蕉葉題詩)》, 이한철의 《방화수유도(訪華隨柳圖)》]를 하였다.

또한 남자 어른들의 모임인 아회(雅會)[김홍도의 《단원도》, 이인문의 《누각아집도(樓閣雅集圖)》], 시회[정황의 《역안와수석시회도》], 계회(契會)[김홍도의 《기노세련계도(耆老世聯稷圖)》, 이동명의 《계회도(契會圖)》]에서의 시중들기, 차 준비나 음식준비[김준근의 《기산풍속화첩(箕山風俗畫帖)》 중 쌍륙, 김득신의 《풍속팔곡병》 중 1면, 이용림의 《청설련금도(聽雪聯吟圖)》]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노인잔치인 기사연회(耆社宴會)에서 노인들을 안내하고 부축하는 일[김홍도의 《기노세련계도》]도 하였다.

여아들의 경우는 주로 가내의 가사 일이나 잔치를 돕는 일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여자어른 옆에서 바느질을 배우기[조영석의 《바느질》], 추수 때 참 나르기[작가미상의 《전가낙사도》], 음식이나 술상나르기[작가미상의 《서당》, 작가미상의 《사시장춘(四時長春)》], 연회 음식 나르기[김홍도의 《평양감사향연도》 중 부벽루연회도] 등과 같은 일을 하였다. 특별한 경우 남자 어른 옆에서 차를 달이기도 하였다[이도영의 《오원선생회도(吾園先生揮毫圖)》]. 또한 여아도 어른들의 담배시중으로 장죽을 들고 있는 연동(煙童)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점매].

2) 생업 참여하기

상민자녀로 보이는 남아들은 어른들을 도와 일찍부터 생업에 종사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업과 관련된 일들을 보면, 농사일을 하는 어른들 돕기[김홍도의 《경직도》], 고기잡이 돕기[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고기잡이] 등과 같이 어른들의 집밖 생업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어른들을 도와 대장간 풀무질하기[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대장간], 작두밧기[조영석의 《작두질》], 장에 다녀오기[김득신의 《귀시도(歸市圖)》, 이형록의 《설중향시도(雪中向市圖)》] 등의 생업에 참여하였다.

이외에 연령이 많은 남아가 독자적으로 한 일들을 보면, 마동(馬童) 노릇[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노중상봉, 신윤복의 《연소담청(年少踏靑)》, 조영석의 《사제첩(驛齋帖)》 중 마동, 정선의 《세검정(洗劍亭)》, 윤덕희의 《행려도(行旅圖)》], 소치는 목동[김두량의 《목동오수(牧童午睡)》, 김지의 《우배도하도(牛背渡河圖)》, 김홍도의 《기우도(騎牛圖)》, 《목동귀가(牧童歸家)》, 《섬우도(涉牛圖)》, 작가미상의 《청록산수도(靑綠山水圖)》], 나무질꾼[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고누놀이], 씨름판이나 큰 행사장의 멧장수[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씨름, 《안능신영》, 작가미상의 《수원능행도(水原陵行圖)》] 등이 있다. 여아는 남아보다 어른들의 생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가야금 손질 구경하는 동기(童妓)[신윤복의 《탄금도(彈琴圖)》]가 있을 뿐 가정 밖의 생업과 관련된 것은 별로 없다.

3) 공부하기

남아들은 글공부를 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서당에서 훈장을 모시고 학동들과 글공부하는 모습[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서당, 작가미상의

《서당》, 작가미상의 《경직도》]이나 사랑채에서 독선생과 함께 공부하는 모습[김홍도의 《삼공불환도(三公不換圖)》, 김득신의 《풍속 팔곡병》 중 7면]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글공부하는 모습은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어 서당의 엄하면서 장난스러운 모습[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서당], 사랑채의 열린 공간에서 학동들이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공부하는 모습[작가미상의 《서당》, 작가미상의 《경직도》]으로 표현되고 있다. 학업은 양반가정뿐만이 아니라 상민가정의 남아도 열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민 부모가 자리를 짜는 곁에서 아들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자리 짜기]이 그려지고 있어 학업적 노력이 계급의 제한없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가 18세기 이후 신분사회의 벽이 점차 허물어져 평민들도 서당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관련시켜 해석되고 있다(한국방송공사, 1999).

4) 놀이하기

아동들의 놀이 특성은, 아동 자신의 놀이 즐기기, 놀이 구경하기, 아동의 놀이를 타인에게 보여주기, 그리고 놀잇감 이용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 아동 자신의 놀이 즐기기

아동들 중 남아들은 아동끼리 놀이를 하거나 곁에 있는 동물과 함께 놀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남아들이 함께 놀이하는 모습으로는 고누놀이[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고누놀이], 공기놀이[윤덕희의 《공기놀이》]가 있으며, 씨름이나 택견과 같은 시합을 하기도 하였다[유숙의 《대쾌도(大快圖)》]. 그리고 민화 중 중국 화풍의 영향이 강

하고 성인들의 다남(多男) 소원이 표출된 작가미상의 《백동자도(百童子圖)》에서는 아동들이 닭싸움놀이, 원숭이놀이, 장군놀이, 가마놀이, 활쏘기, 사냥놀이, 단오놀이, 미역감기, 연날리기, 팔랑개비놀이, 꽃놀이, 서당놀이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아들은 목동의 역할을 하면서 소와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거나[김지의 《우배적성도(牛背笛聲圖)》, 김홍도의 《목동귀가》], 개와 재미있게 장난을 치는 모습[신광순의 《초구도(招狗圖)》]으로도 표현되었다. 한편 남아들이 단오날 목욕하는 여인들을 몰래 구경하는 놀이 모습으로도 표현되어 [신윤복의 《혜원풍속도》 중 단오풍정(端午風情)] 성적 호기심이 장난스런 놀이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아들도 단오날 자연 속에서 여자 어른들과 함께 그네를 뛰거나 구경을 하기도 하였다[김준근의 《단오추천(端午鞦韆)》].

나. 아동 놀이(재주) 보여주기

아동들의 자연스러운 놀이는 아니지만 연령이 많은 남아들은 자신들이 연마한 놀이 기술(광대놀이)을 타인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줄에서 춤을 추는 줄광대[김준근의 《기산풍속화첩》 중 줄광대]와 삼현육각(三弦六角)에 맞추어 신나게 춤추는 무동(舞童)[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무동], 기노회(耆老會) 연회에서 춤추는 무동[김홍도의 《기노세련계도》]의 역할을 하였다. 드문 경우로 여아들도 연회에서 춤추는 역할을 하였다[김홍도의 《홍계희평생도 육곡병》 중 1면 삼일유가].

다. 놀이 구경하기

아동들은 또래놀이는 물론 성인들의 놀이에 구경꾼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들은 바깥에서 행해지는 어른들의 놀이에

구경꾼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성인들이 행하는 투호시합[김준근의 《기산풍속화첩》 중 투호, 안견의 《투호도(投壺圖)》]과 씨름[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씨름, 유숙의 《대쾌도》], 검무[신윤복의 《쌍검대무(雙劍對舞)》]를 어른들 곁에서 구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 놀잇감 이용

아동들은 돌이나 물가 등 자연환경 속에서 노는 경향이 많았으므로 놀잇감을 갖고 노는 장면이 표현된 것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 그림에서 표현되고 있는 놀잇감으로 바람개비를 들 수 있다. 어린 아동들은 어머니나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가거나 놀이 구경을 하면서 바람개비를 들고 있는 모습[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길쌈, 김지의 《여인사서도》, 김홍도의 《경적도》, 윤덕희의 《공기놀이》]으로 나타나 바람개비가 당시 매우 흔하게 갖고 놀던 놀잇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백동자도》에서는 남아들이 비교적 여러 놀이감, 즉, 전쟁놀이도구, 운동놀이도구, 동물 등을 갖고 놀았으며 윤덕희의 《공기놀이》에서는 돌과 같은

자연물도 아동들의 놀잇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놀잇감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아동들이 즐겼던 것 중에 담배피우기가 묘사되었다. 남아들이 어른들과 같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장터길] 아동들이 어른들의 담배 심부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끼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의례와 지역행사 참여

아동들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 참여자 또는 구경꾼으로 참가하였다. 인간 생애의 주요 행사로 들 수 있는 돌잔치, 과거급제 축하행렬, 관직 부임행차, 그리고 회갑잔치가 벌어지면 아동들은 주인공이나 구경꾼으로 참여하였다[김홍도의 《홍계회평생도육곡병》, 작가미상의 《평생도(平生圖)》, 작가미상의 《회혼예도》]. 또한 국가나 지역사회의 대규모 행사나 잔치에도 행사참여자, 일꾼, 그리고 춤꾼 등으로 참여하여 행사를 돕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작가미상의 《수원능행도》, 김홍도의 《평양감사향연도》 중 월야선유도].

IV. 결 론

조선시대 아동들의 생활이 묘사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화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전통사회의 아동양육 특성은 가족 중심적으로 부모, 조부모, 형제 등 가족구성원 모두가 양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주된 양육자인 어머니는 생활 장면 어느 곳에서나 자녀를 곁에 두고 돌보았다. 할머니도 손자녀를 업어주거나 돌보는 것으로 양육을 도왔으며 잔치나

놀이구경에도 손자녀를 데리고 나가 함께 즐기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 며느리보다 여유있게 양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엄격한 훈육자로 인식되어 온 아버지는 물론 할아버지와 같은 남성들도 어린 아동의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식사나 참을 먹거나 생업에 종사할 때 그리고, 여행길, 놀이, 잔치구경 등에서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연스런 양육을 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할아버지의 경우도 가족행사는 물론 집안·밖을 전사할 때나 산천을 찾아 한가하게 자연을 즐길 때 그리고 야회나 시회 등과 같은 선비들의 사교적 모임에 손자를 대동하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손자녀 인성 함양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전통사회에서 엄부의 태도가 강조되고 성역할 교육단계에 들어서서야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남자를 훈육한다고 인식되어 온 것과는 달리 보다 이른 시기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일상생활을 통하여 양육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자어른들의 양육에 대한 참여는 조선 중기에 손자의 출생에서부터 13세까지 양육과정을 애정과 근심으로 기록한 「양아록」(이문전, 1997)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와 함께 양육장소의 개방적 특성도 나타났다. 즉 양육의 장소가 집안은 물론 집밖의 여러 생활 장면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진 것으로 나타나 양육이 집안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개방적 장소에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양육이 생업장소에서 행해진 경우 아동성장 환경으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문제도 있겠으나 보다 확장된 양육공간에서 다양한 실생활과 폭넓은 인간 관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보겠다. 전통사회의 이러한 인적, 물리적 양육환경은 현대사회의 타인의 지원이 요구되는 핵가족 중심 양육이나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과 같은 장소 제한적인 양육환경과는 상이한 양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급에 따라 부분적으로 양육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즉, 양반계급에서는 산과 물을 벗하는 휴식, 의례행사, 그리고 사교모임과 같은 한가한 여가활동에 성인과 아동이 함께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으나 평민계급에서는 분주하게 농사를 짓는 논밭, 생업 장소에

어른과 함께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계급적 특성(백혜리, 2001; 최기영, 이정미, 2000)에 따른 양육상의 차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성별로도 동성(同性) 어른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찍부터 성역할 교육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었다고 하겠다.

둘째, 전통사회 아동생활 특성은 가내·외 일 돕기와 어른 시중들기, 생업참여, 공부하기, 놀이하기, 그리고 의례 및 행사참여하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들 중 일부는 선행연구 결과(정진, 백혜리, 2001)와 유사하나 어른 시중들기와 의례 및 행사참여하기는 본 연구에서 새로이 밝혀진 것이다. 가내·외 일돕기와 어른 시중들기는 전통사회에서 아동들에게 일에 대한 가치 인식과 근면성을 장려하였음(주희, 1982; 이덕무, 1985)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어른시중들기는 효행이 강조되고 장유유서의 질서가 강조되던 조선시대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평민가정의 아동들은 농사일은 물론 대장간 일이나 고기잡이 등 다양한 생업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장래 생업 준비는 물론 아동기부터 일터에서 노동을 하였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한편 서당에서 공부하기는 주로 남아들에게 한정된 것으로 나타나 학업 기회가 성별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놀이기도 아동들의 주요한 활동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자신의 놀이즐기기, 연마한 놀이(재주) 보여주기, 놀이구경하기, 그리고 놀이감 이용의 특성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아동들은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물을 이용하거나 동물들과 놀이를 하면서 즐기고 있었으며 인공적이거나 다양한 놀이감은 별로 사용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아동놀이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놀이에 대한 인식이 별로 긍정적이지 않

왔고 과도한 놀이를 금하였던 당시의 인식을 감안한다면(이덕무, 1985; 이윤곡, 1986) 중국 풍기는 하나 백동자도에서 남아들의 다양한 놀이가 표현된 것은 놀이가 남아들의 생활 속에서 비교적 성행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들은 연령이 유사한 또래들과의 놀이는 물론 성인들과 함께 놀이를 구경하고 있어 놀이구경에 연령적 구분이 별로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이 연마한 놀이(재주)로 성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여 여흥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들의 담배피우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녀 아동들이 어른들의 담배심부름을 자연스럽게 한 것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조선시대 아동들의 꺾연이 별로 금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여러 기록에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정연식, 2001).

의례와 지역행사 참여도 주요한 활동 중의 하나로 나타났는데 아동들은 이러한 의례와 행사를 구경하거나 참여하면서 인생의 전 과정을 자연스럽게 접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동들이 과거급제 행렬이나 관직부임 행차 등과 같은 입신양명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볼 때 관직에 나서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이를 장래의 목표로 삼는 예기사회화(豫期社會化)가 일찍부터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들이 공부나 놀이는 물론 가내·외 일 돕기나 생업에 종사하는 것과 같은 일하기가 생활 중의 하나로 나타난 것은 전통사회 아동들에게 노동이 보편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부 남아들이 어른들의 시

중꾼으로 부러지기도 하였으나 현재 아동들 대부분이 노작경험이 결여된 채 과도하게 학업주도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전통사회가 아동의 노작에 가치를 부여하였고 전인적 인간형성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겠다.

그리고 밝혀진 활동내용들 중 일부는 계급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즉 고기잡이나 대장간일과 같은 생업참여는 평민 자녀의 생활로 묘사되었으며 서당에서 공부하기는 주로 양반자녀의 생활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계급적 특성(백혜리, 2001; 최기영, 이정미, 2000)과 관련된 것으로 신분계급사회인 전통사회에서 아동들의 활동이 부모의 계급에 따라 상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로도 차이가 있어 남자는 여아보다 집밖 활동이 많고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가정 이외의 넓은 활동반경에서 성인기 사회생활에 필요한 성역할 사회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회화 중 풍속화, 인물화, 민화, 산수화를 분석하여 아동양육과 생활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회화에서 파악된 내용만으로 아동들의 양육 및 생활 전체를 파악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외적 표현을 위주로 분석한 것이므로 화의(畫意)까지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밝혀진 결과에 제한점이 있겠으나 그 동안 별로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은 회화 자료를 분석하여 아동의 생활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김영철(1996). 구운몽에 나타난 전통가정교육. 서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류점숙(1994). 전통사회의 아동교육. 대구 : 증문.
- 백혜리(1999). 백동자도(百童子圖)를 통해 본 조선 후기의 아동인식. 유아교육연구, 19(2), 59-76.
- 백혜리(2000). 백동자도(百童子圖)를 통해 본 조선 후기의 아동 인식(2). 아동학회지, 21(2), 67-81.
- 손인수(1991). 한국인의 세시풍속. 서울 : 문음사.
- 안휘준(1985). 한국 풍속화의 발달. 중앙일보사, 한국의 미 19, 풍속화(pp. 168-181). 서울 : 중앙일보사.
- 안휘준(1988). 한국회화의 전통. 서울 : 문예출판사.
- 우영희(1989). 조선시대 교훈서를 통해 본 자녀교육.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안진(1990).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 서울 대학교 출판부.
- 이덕무(1985). 사소질. 김종권(역해). 서울 : 명문당.
- 이문건(1997). 양아록. 이상주(역주). 서울 : 태학사.
- 이순형(1997). 정약용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교육학연구, 35, 41-65.
- 이울곡(1986). 격몽요결. 김성원(역). 서울 : 명문당.
- 이은화(1989). 전통놀이의 유아교육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태호(1996). 조선 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서울 : 학고재.
- 임명미(1997). 한국의 복식문화. 서울 : 경춘사.
- 정대련(1990). 한국 전래동화의 윤리학적 탐구.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연식(2000).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1. 서울 : 청년사.
- 정연식(2001).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2. 서울 : 청년사.
- 정진, 백혜리(2001). 조선 후기 풍속화를 통해 본 아동 인식. 아동학회지, 22(1), 109-124.
- 조효순(1995). 한국복식풍속사 연구. 서울 : 일지사.
- 주희(1982). 소학. 이기석(역). 서울 : 흥신문화사.
- 최기영 · 이정미(2000). 조선시대 회화에서 묘사된 아동 특성. 한국영유아보육학. 21, 59-87.
- 한국방송공사(1999). “김홍도의 풍속화는 국정자료” 역사스페셜 4월 17일 방영.
- Aries(1962). *Centuries of childhood*. NY : Random House.

분석자료 출처

간송미술관 소장품

국립중앙박물관(1991). 국립중앙박물관서화유물도록 1집. 서울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1992). 국립중앙박물관서화유물도록 2집. 서울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1993). 국립중앙박물관서화유물도록 3집. 서울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1994). 국립중앙박물관서화유물도록 4집. 서울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1996). 국립중앙박물관서화유물도록 6집. 서울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1997). 국립중앙박물관서화유물도록 7집. 서울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1998). 국립중앙박물관서화유물도록 8집. 서울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1999). 국립중앙박물관서화유물도록 9집. 서울 : 국립중앙박물관.

안휘준(1986). 국보19 회화 I. 서울 : 예경산업사.

안휘준(1986). 국보20 회화 II. 서울 : 예경산업사.

안휘준(1992). 국보10 회화. 서울 : 웅진출판.

유복열(1979). 한국회화대관. 서울 : 대교원.

조자룡 · 김철순(1992). 민화 : 조선시대 민화(상). 서울 : 웅진출판.

조자룡 · 김철순(1992). 민화 : 조선시대 민화(하). 서울 : 웅진출판.

중앙일보사(1985). 한국의 미111 게재정신. 서울 : 중앙일보사.

중앙일보사(1985). 한국의 미8 민화. 서울 : 중앙일보사.

중앙일보사(1985). 한국의 미11 산수화(상). 서울 : 중앙일보사.

중앙일보사(1985). 한국의 미12 산수화(하). 서울 : 중앙일보사.

중앙일보사(1985). 한국의 미18 화조사군자. 서울 : 중앙일보사.

중앙일보사(1985). 한국의 미19 풍속화. 서울 : 중앙일보사.

중앙일보사(1985). 한국의 미20 인물화. 서울 : 중앙일보사.

중앙일보사(1985). 한국의 미21 단원김홍도. 서울 : 중앙일보사.

최순우(1981). 한국미술대전집12 회화. 서울 : 도산문화사.

부록 <표 1> 분석자료 목록

작 가	작 품 명	출 처
김두량	목동오수(牧童午睡)	한국의 미19 풍속화
김두량, 김덕하	사계산수도(四季山水圖) 중 여름, 가을	국보19 회화 I
김득신	강변회음(江邊會飲)	한국의 미12 산수화(하)
	귀시도(歸市圖)	한국의 미20 인물화
	부취도(扶醉圖)	한국회화대관
	성하직리(盛夏織履)	한국의 미19 풍속화
	풍속팔곡병(風俗八曲屏) 중 1면	한국의 미19 풍속화
	풍속팔곡병(風俗八曲屏) 중 3면	한국의 미19 풍속화
	풍속팔곡병(風俗八曲屏) 중 7면	한국의 미19 풍속화
김준근	기산풍속화첩(箕山風俗畫帖) 중 쌍륙	한국의 미19 풍속화
	기산풍속화첩(箕山風俗畫帖) 중 줄광대	한국의 미19 풍속화
	기산풍속화첩(箕山風俗畫帖) 중 투호	한국의 미19 풍속화
	단오추천(端午鞦韆)	개인소장
김지	여인사서도(麗人寫書圖)	한국의 미11 산수화(상)
	우배도하도(牛背渡河圖)	한국회화대관
	우배적성도(牛背笛聲圖)	한국회화대관
김홍도	관암도(冠巖圖)	한국의 미21 단원김홍도
	기노세련계도(耆老世聯稷圖)	한국의 미21 단원김홍도
	기우도(騎牛圖)	국보 증보판 I
	단원도	한국의 미21 단원김홍도
	모당평생도팔곡병(慕堂平生圖八曲屏)중 1면	한국의 미21 단원김홍도
	목동귀가(牧童歸家)	한국의 미21 단원김홍도
	삼공불환도(三公不換圖)	한국의 미21 단원김홍도
	서원아집(西園雅集)	한국의 미21 단원김홍도
	선면서원아집(扇面西園雅集)	한국의 미21 단원김홍도
	섭우도(涉牛圖)	한국의 미21 단원김홍도
	안릉신영(安陵新迎)	한국의 미21 단원김홍도
	평양감사향연도(平壤監司饗宴圖) 중 부벽루연회도(浮碧樓宴會圖)	한국의 미21 단원김홍도
	평양감사향연도(平壤監司饗宴圖) 중 월야선유도(月夜船遊圖)	한국의 미21 단원김홍도
	풍속화첩(風俗畫帖) 중 고기잡이	한국의 미19 풍속화
	풍속화첩(風俗畫帖) 중 고누놀이	한국의 미19 풍속화
	풍속화첩(風俗畫帖) 중 길쌈	한국의 미21 단원김홍도
	풍속화첩(風俗畫帖) 중 노중상봉	한국의 미19 풍속화
	풍속화첩(風俗畫帖) 중 대장간	한국의 미19 풍속화
	풍속화첩(風俗畫帖) 중 무동	한국의 미21 단원김홍도
	풍속화첩(風俗畫帖) 중 빨래터	한국의 미19 풍속화
	풍속화첩(風俗畫帖) 중 서당	한국의 미21 단원김홍도
	풍속화첩(風俗畫帖) 중 신행	한국의 미19 풍속화
	풍속화첩(風俗畫帖) 중 씨름	한국의 미19 풍속화
	풍속화첩(風俗畫帖) 중 어촌귀가	한국의 미21 단원김홍도
	풍속화첩(風俗畫帖) 중 자리짜기	한국의 미19 풍속화
	풍속화첩(風俗畫帖) 중 장터길	한국의 미19 풍속화
	풍속화첩(風俗畫帖) 중 점괘	한국의 미19 풍속화
풍속화첩(風俗畫帖) 중 점심	한국의 미19 풍속화	
풍속화첩(風俗畫帖) 중 주막	한국의 미19 풍속화	
풍속화첩(風俗畫帖) 중 행사	한국의 미19 풍속화	

작 가	작 품 명	출 처
김홍도	행려풍속팔곡병(行旅風俗八曲屏) 중 8면	한국의 미21 단원김홍도
	홍계희평생도육곡병(洪啓禧平生圖六曲屏) 중 1면	한국의 미19 풍속화
	홍계희평생도육곡병(洪啓禧平生圖六曲屏) 중 5면	한국의 미19 풍속화
	홍계희평생도육곡병(洪啓禧平生圖六曲屏) 중 6면	한국의 미19 풍속화
김홍도전(傳)	경직도(耕織圖)	국립중앙박물관서화유물도록 7집
마군후	촌녀채종(村女採種)	한국의 미19 풍속화
신광순	초구도(招狗圖)	한국의 미20 인물화
신윤복	쌍검대무(雙劍對舞)	한국의 미19 풍속화
	연소담청(年少踏靑)	한국의 미19 풍속화
	장옷입은 여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탄금도(彈琴圖)	한국회화대관
	혜원풍속도 중 단오풍정(端午風情)	한국의 미 19 풍속화
신한평	젓 먹이기	간송미술관소장
안견	투호도(投壺圖)	국립중앙박물관서화유물도록 9집
유숙	대쾌도(大快圖)	한국의 미19 풍속화
유운홍	기녀(妓女)	한국의 미19 풍속화
윤덕희	공기놀이	한국의 미19 풍속화
윤덕희(傳)	행려도(行旅圖)	국립중앙박물관서화유물도록 8집
이도영	오원선생휘호도(吾園先生揮毫圖)	한국회화대관
이동명	계회도(契會圖)	국립중앙박물관서화유물도록 3집
이방운	파초고사도(芭蕉高士圖)	한국의 미12 산수화(하)
	포금방우도(抱琴訪友圖)	한국회화대관
이용림	청설련금도(聽雪聯吟圖)	한국의 미12 산수화(하)
이인문	누각아집도(樓閣雅集圖)	한국미술대전집12 회화
이재관	오수도(午睡圖)	한국의 미12 산수화(하)
	초엽제시(蕉葉題詩)	한국의 미20 인물화
이한철	방화수유도(訪華隨柳圖)	한국의 미12 산수화(하)
	세시풍속도(歲時風俗圖)	한국의 미19 풍속화
이형록	설중향시도(雪中向市圖)	한국의 미12 산수화(하)
작가미상	경직도	한국의 미19 풍속화
	백동자도(百童子圖)	한국의 미8 민화
	사시장춘(四時長春)	한국의 미19 풍속화
	서당	한국의 미19 풍속화
	수원능행도(水原陵行圖)	한국의 미19 풍속화
	전가낙사도(田家樂事圖)	한국의 미8 민화
	청록산수도(靑綠山水圖)	국립중앙박물관서화유물도록7집
	평생도(平生圖)	한국의 미8 민화
회혼예도(回婚禮圖)	한국의 미19 풍속화	
정선	세검정(洗劍亭)	한국의 미1 경제정선
정황	역안와수석시회도(易安窩壽席詩會圖)	한국의 미19 풍속화
조영석	바느질	한국의 미19 풍속화
	사계첩(壽躋帖)중 마동	한국의 미19 풍속화
	새참	한국의 미19 풍속화
	어선도(漁船圖)	한국의 미12 산수화(하)
	작두질	한국의 미19 풍속화
채용신	운낭자상(雲娘子像)	한국의 미20 인물화
허난설헌	앙간비금도(仰看飛禽圖)	한국회화대관